

예비 도무·덕무의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황 도 국 교화상임위 전문위원

목 차

- 이끄는 말
- I. 도무·덕무의 현황
 - 1. 제규정에 나타난 도무·덕무에 대한 내용
 - 1. 제규정에 나타난 도무·덕무에 대한 내용
 - 2. 도무·덕무의 품과별 제도 시행배경
 - 3. 도무·덕무의 근무 방향
 - 1) 문제제기
 - 2) 도무·덕무의 근무방향
- 예비 도무·덕무의 교육 방향
 - 1. 예비도무의 교육 방향
 - 1) 예비도무의 교육과정
 - 2) 예비도무의 교육과정 문제점
 - 3) 예비도무의 바람직한 교육 방향
 - 2) 예비도무의 교육과정 문제점
 - 3) 예비도무의 바람직한 교육 방향
- V. 예비 도무·덕무 교과과정에 대한 제안
 - 1. 예비도무의 교과과정에 대한 제안
 - 2. 예비도무의 교과과정에 대한 제안
- I. 맺는 말

I. 이끄는 말

「교육은 교운이다」. 새삼스러이 거론하지 않아도 교육은 교단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다. 우리 교단은 창교 이래로 끊임없이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것은 교단 발전의 핵심이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개선하고 개혁함으로써 교단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원기 75년 11월 11일 제3회 교무회의 결의와 동년 12월10일 임시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발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교육발전위원회가 발족된 배경에는 급변하는 사회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교단적 실력의 배양, 사회교화 등 각 분야 교화발전의 도모, 창립 초기 생동하던 훌륭한 교단정신의 발전적 계승,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교단제도 및 행정의 정착 등을 통하여 세계적 종교로의 발돋움이라는 과제를 실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후천 개벽시대 새

종교로서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재가·출가의 결집된 의지와 시대적 요청이 바탕되었다. 그것은 교육은 교단발전의 핵심 요소이며, 교육의 방향과 교육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 미래 교단의 방향과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전무출신의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교단의 현안이다. 특히 그동안 교육하면 당연히 예비교무의 교육 문제였다. 그러나 전무출신 품과별 제도가 정착되면서 이제는 예비교무의 교육문제와 더불어 예비 도무와 덕무의 교육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도무·덕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제규정에 나타난 도무·덕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다음 예비 도무와 덕무의 바람직한 교육 방향을 설정해 보고 예비 도무와 덕무의 교과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교과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안해 보려고 한다.

II. 도무·덕무의 현황

<표1> 84년도 품과별 현황

합 계			교 무			도 무			덕 무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635	603	1,032	1,507	568	939	21	15	6	107	20	87

<표2> 출가도무의 현황

	75미전	76년	79년	80년	83년	합계	비고
남자	3	1	2	1	5	12	퇴임4명
여자		1		1	2	4	
계	3	2	2	2	7	16	

<표3> 예비도무 현황

	80년이전	81년	82년	83년	84년	합계	비고
남자	5	2	5	2	5	14	
여자	1	1	1		2	3	
계	6	3	6	2	7	17	

<표4> 출가덕무의 현황

	75이전	76년	79년	81년	83년	합계	비고
남자	6		9		5	20	퇴임17명
여자	23	4	14	1	8	50	
계	29	4	23	1	13	70	

<표5> 예비덕무의 현황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합계	비고
남자	1	2		1	2	6	퇴임4명
여자	2		1	2	2	7	
계	3	2	1	3	4	13	

Ⅲ. 제 규정에 나타난 도무·덕무에 대한 내용

1. 제규정에 나타난 도무·덕무에 대한 내용

1) 전무출신 정신 (전무출신 규정 제3조, 정신)

- ① 시방세계 육도사생의 전 생명이 자신의 생명이요 전체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으로 안다.
- ② 교단과 인류와 생령을 위하여 남김없이 심신을 바친다.
- ③ 삼학팔조와 사은사요를 몸소 실천하여 전 인류에게 전하여 줄 천직을 부여 받았다.
- ④ 진리와 법과 공을 위하여는 신명을 다한다.
- ⑤ 오직 신심과 공심과 공부심과 자비심으로 충만한 삶으로 산다.

2) 전무출신 자세 (전무출신 규정 제3조, 자세)

- ① 신성이 견실하여 진리와 법과 회상과 스승 이외에는 달리 마음이 흐르지 아니한다.
- ② 사가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그 임무에 전일한다.
- ③ 임무에 취지가 급료 여부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삼경감으로써 이행한다.

④ 교단의 명령에는 호오를 가리지 아니하고 항상 그 지정업무에 충실한다.

⑤ 공부, 사업 양 방면으로 항상 공덕을 나눈다.

⑥ 기타 전무출신에 관한 규정을 일일이 준수한다.

3) 전무출신 각 품과별 지원자격(전무출신 규정 시행규칙 2조, 지원자격)

	교 무	도 무	덕 무
자격	1. 교무품과의 지원자격 가. 연령 : 30세 이하(학사편입 : 35세 이하) 나.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1. 도무품과의 지원자격 가. 연령 : 18세 ~ 45세 나. 학력 또는 기술자격 : 4년제 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또는 다음의 자격을 취득한 자(의사, 한의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중등학교교사, 간호사,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기술계기사, 기타 교정원장이 인정하는 전문기술)	1. 덕무품과의 지원자격 가. 연령 : 18세 ~ 45세

4). 전무출신 품과별 자격(전무출신 품과별 자격 규정 3조, 4조, 5조)

등급	교 무	도 무	덕 무
5급	▶법위 특신급 이상인 전무출신으로 5급 교무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	▶법위 특신급 이상인 전무출신으로 5급 도무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	▶법위 특신급 이상인 전무출신으로 5급 덕무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
4급	▶5급 교무 중 법위 예비법마상전급 이상, 근무 4년 이상으로 그 기간 중 상당한 실력을 갖추며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여 자격 전형에 합격한 자.	▶5급 도무 중 법위 예비법마상전급 이상, 근무 4년 이상으로 그 기간 중 상당한 실력을 갖추며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여 자격 전형에 합격한 자.	▶5급 덕무 중 법위 예비법마상전급 이상, 근무 6년 이상으로 그 기간 중 상당한 공심을 갖추며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여 자격 전형에 합격한 자.
3급	▶4급 교무 중 법위 정식법마상전급 이상, 법람 15년 이상, 근무 10년 이상으로 상당한 수행과 교화의 실력이 있고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여 자격 전형에 합격한 자.	▶4급 도무 중 법위 정식법마상전급 이상, 법람 15년 이상, 근무 10년 이상으로 상당한 수행과 소관 분야의 실력이 있고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여 자격 전형에 합격한 자.	▶4급 덕무 중 법위 정식법마상전급 이상, 법람 15년 이상, 근무 11년 이상으로 상당한 수행과 봉공의 실력이 있고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여 자격 전형에 합격한 자.
2급	▶3급 교무중 법위 예비법강항마위 이상, 법람 20년 이상, 근무 15년 이상으로 수행과 교화의 공이 드러나고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여 자격전형에 합격한 자.	▶3급 도무 중 법위 예비법강항마위 이상, 법람 20년 이상, 근무 15년 이상으로 수행과 소관 분야의 공이 드러나고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여 자격 전형에 합격한 자.	▶3급 덕무 중 법위 예비법강항마위 이상, 법람 20년 이상, 근무 16년 이상으로 수행과 봉공의 공이 드러나고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여 자격 전형에 합격한 자.

등급	교 무	도 무	덕 무
1급	▶2급 교무중 범위 정식 법강항마위 이상, 법랍 25년 이상, 근무 20년 이상으로 수행과 교화의 공이 드러나 대중의 사표가 되며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여 자격 전형에 합격한 자.	▶2급 도무중 범위 정식법강항마위 이상, 법랍 25년 이상, 근무 20년 이상으로 수행과 소관 분야의 공이 드러나 대중의 사표가 되며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여 자격 전형에 합격한 자.	▶2급 덕무중 범위 정식법강항마위 이상, 법랍 25년 이상, 근무 21년 이상으로 수행과 봉공의 공이 드러나 대중의 사표가 되며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여 자격 전형에 합격한 자.

5) 도무 · 덕무 자격검정

- ① 도무 · 덕무 자격검정은 교무자격검정위원회에서 대행하다.
- ② 도무 자격은 수학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기본 교서와 면접을 실시하여 검정한다.
- ③ 덕무 자격은 수학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여 검정한다.(시설 80. 3. 31)

2. 도무 · 덕무의 품과별 제도시행 배경

전무출신 품과제도는 전무출신을 교무 · 도무 · 덕무의 셋으로 나누어 시행하는 것으로 교무는 교무의 자격을 취득하여 교화를 비롯한 교단의 모든 분야에서 전무하는 자, 도무는 도무의 자격을 취득하여 교육 · 행정 · 자선 · 연구 · 기술 · 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전무하는 자, 덕무는 덕무의 자격을 취득하여 근로와 기능 등의 분야에서 전무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품과제도의 시행 목적은 ① 인재수급 제도의 체계화, ② 인력의 전문성 재고, ③ 인력의 합리적 관리운영에 있었다. 이러한 시행 목적에 따라 원기 78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전무출신은 본인이 품과를 선택하고 수위단회의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종법사가 승인하였다.

품과제도 실시의 동기와 배경은 전무출신 제도가 규정대로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고 숫자를 늘리기 위한 편법이 작용하여 서류 전무출신이 상당수 발생되어 전무출신이니 교무니 하는 말에 혼선을 빚게 된데서 비롯되다. 출가교무의 경우 전무출신이란 뜻이 상당히 변질되었고 전무한다는 말 자체도 이미 내용과 형식에 괴리현상을 가져왔으며, 그에 따라 품과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여러차례의 회의를 거쳐 원기 80년(1995) 1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원기 79년 6월 임시수위단회의에서 품과선택 자격심사를 했는데 이때 총무부에서 제출한 자

료를 보면 교무선택자 1,192명, 교무선택 가능자 중에서 도무선택자 28명, 덕무선택자 6명, 그리고 덕무 밖에 할 수 없는 덕무대상자 43명, 도무가능한 덕무선택자 2명, 미제출자 71명으로 나타났다. 그 당시 수치를 놓고 볼 때 현직 전무출신 대부분이 교무를 지망했고 덕무선택자는 극소수였다. 따라서 현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품과제도 시행은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다만 교단 미래를 놓고 볼 때 충분한 준비와 연차계획을 세워 전무출신 품과제도 시행을 위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부분이었다.

3. 도무 · 덕무의 근무방향

1) 문제 제기

전술한 바와 같이 도무와 덕무의 품과별 제도시행은 교무는 교무의 맡은 분야에서 더욱 충실히 전무출신 정신으로 교화에 전념하고, 도무는 도무의 맡은 바 전문직에서 전무출신 정신으로 전문성을 발휘하여 기관을 발전시키고, 덕무는 덕무의 맡은 바 직장에서 전무출신 정신으로 봉공직에서 근로와 기능으로 제도사업에 헌신함으로써 교단발전과 제생의세의 경륜을 실현함에 있어서 결함됨이 없이 하자는 뜻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나 시행 당시부터 교육방법이나 교육기관이 모호한 상태에서 출발하였고, 품과별 제도시행은 단행하였으되 충분한 준비와 연차계획이 없이 출발하였으며, 그에 따라 도무는 출가 배출되었으나 근무처가 마땅치 않아 인사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겼으며, 전무출신의 문호를 개방하고 더욱 많은 인재들이 교단의 전문직과 봉공직에서 공부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였는데 도무를 지원하는데도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원불교학과를 4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고 졸업하여 교무의 품성으로서 적격치 않아 도무를 지원할 경우 전문성이 없어 도무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래 품과별 제도를 시행할 당시에는 상당한 부분 선택의 의미가 주어졌던 것에서 규정되어진 부분이다. 아울러 원기 75년에 발족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교육발전안에서는 교무품과를 지원한 예비 교무에게 부전공과 복수전공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였는데 그 뒤 전무출신 품과별 제도시행에 따라서 전문직은 도무를 흡수하여 보충하는 방향으로 정함에 따라서 품과는 교무품과를 지원하여 교육받고 복수전공을 선택한 사람은 복수전공 쪽으로 교단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품과변경을 하여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정하여져 교육방침과 교단정책과 상반된 방향의 모순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부분은 시급이 교단에서 정책과 교육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할 부분이다.

덕무는 근로와 기능의 분야에서 전무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덕무는 교단의 가장 굵은 일을 맡아서 봉공하는 봉공직이다. 봉공직에서 근무하면서도 공부하는 기쁨으로 살 수 있어야 하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봉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법정신을 보면 봉공직에서 많

온 도인들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교무와 도무는 전무출신 품과별 자격등급 5급에서 1급까지 기준이 똑같은데 덕무는 조금의 차이를 둔 것은 재 조정되어야 하리라 본다. 또한 덕무의 근무 범위가 한정된데서 봉공직의 다양한 활동영역을 허용해 줌으로써 전무출신 봉공직의 지원을 유도하고 그럼으로써 제생의세의 경륜을 실현할 수 있는 문호를 폭 넓게 개방할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도무·덕무의 근무방향

전무출신규정 제1장 6조 품과에 보면 「도무는 도무의 자격을 취득하여 교육, 행정, 자선, 연구, 기술, 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전무(專務)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덕무는 「덕무의 자격을 취득하여 근로와 기능 등의 분야에서 전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헌규에 규정한대로 전무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도무와 덕무 이전에 전무출신으로서 정신과 자세가 확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나고 일을 잘 한다 할지라도 전무출신의 정신과 자세로 교법에 대한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사업에 임할 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며, 현재는 도무의 수가 많지 않아 드러나지 않지만 도무의 숫자가 많아질 경우 교단의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전무출신 품과별 제도 시행 할 시 교육방법과 교육기관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뜻을 같이 한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무 품과의 전문성을 심분 활용하여 교단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도운동을 효과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덕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처한 직장에서 보람과 기쁨으로 공부하며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뿐 아니라, 봉공직에 많은 전무출신이 지원하여 제생의세의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이 점진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품과별 시행 목적처럼 인재수급제도를 체계화 시키고, 인력의 전문성을 재고하며, 인력의 합리적 관리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더욱 많은 전무출신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각자의 맡은 바 직장에서 근무해야 할 것이다.

IV. 예비 도무·덕무의 교육방향

1. 예비 도무의 교육방향

1) 예비 도무의 교육과정

예비 도무의 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을 1년으로 한다(예비전무출신교육에관한규칙제25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현직에서 근무하면서 도무품과 전무출신을 서원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러한 면을 참작하여 다만 근무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정기·상시훈련과정 4년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시행상에서는 전원 후자를 선택하여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규 교육과정을 설정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소수의 인원을 위해서 기관과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관리하기에는 행정 여건상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규 교육과정은 전문양성기관이 개설되기 전까지는 교육부장이 지정하는 육영기관에서 위탁 교육을 실시하되 그 이수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규교육과정 이수시

ㄱ). 수양과: 의무이수(신설80.3.31)

ㄴ). 취사과: 의무이수(신설80.3.31)

ㄷ). 연구과: 48학점 이상(기본 교서중심 지정과목)(신설80.3.31)

◇ 정규교육과정 여건이 불가피한 경우 정기·상시훈련과정 4년 이수시

ㄱ). 정기훈련기간: 년 20일 이상.

ㄴ). 상시훈련은 도량일과를 중심으로 근무지 기관장 책임하에 실시한다.(신설80.3.31)

◇ 기타 사항은 예비교무의 양성에 준하여 적의히 처리한다.(신설80.3.31)

2). 예비 도무 교육과정 문제점

예비 도무의 교육과정 중 정기교육과정인 정기훈련시 과정을(원기80~83년) 앞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예비도무의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왜냐하면 예비 도무의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예비도무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교육과정의 외적인 문제부터 검토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도무의 출신성분은 대부분 현직에서 근무하다가 전무출신 권유를 받거나, 교단의 기관에 근무하다보니 법에 소중성을 깨달아 전무출신을 서원하게 된다. 그러므로 출가는 하였으나 근무상황에서 예비도무로서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때문에 규정에는 1년간 교육부장이 지정하는 곳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는 정기·상시훈련기간에 받는 4년간의 교육과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무출신을 서원한 출가교도로서 출가의 매듭을 짓는

집중적인 교육이 일부만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또 하나는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미흡하고 역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때 그때 대처하는 교육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정기교육과 상시기간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체계가 미흡하여 형식적인 교육에 그칠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교수(교무)요원을 비교하여 보면, 교학대학이 학생 131명에 교수 및 지도요원(행정요원포함)이 17명, 영산대학이 학생 62명에 교수 및 지도요원(행정요원 포함)이 18명, 대학원대학교가 학생 74명에 교수 및 지도요원(행정요원포함)이 16명이다. 예비 도무와 덕무는 30명에 교육부에서 행정에 역력이 없는 실정에서 예비 도무와 덕무의 교육을 맡게 됨으로써 결국 덕무훈련은 상주선원으로 이관되어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예비 도무와 덕무의 교육은 품과별 제도 시행시 똑같은 위치에서 논의되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교육적 배려가 너무나 미흡한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예비 도무와 덕무의 교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체계적이며 일과성 있게 관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정기·상시기간의 연결선상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정기·상시훈련기간의 교육과정 진행의 문제이다.

첫째는 훈련방향이 정확히 정하여 있지 않고 일관성이 미흡한 점이다. 그것은 아직 도무의 근무상황이 교단정책상 확실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도무교육에 대해서 심도있고 총체적인 교단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나타나는 결과라 본다.

두 번째는 연구과정의 체계적인 배정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물론 지원자의 수가 적은 데다가 정기교육은 1년차에서 4년차까지 함께 훈련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1년차에서 4년차까지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교육과정이 포석되어야 하리라 본다.

세 번째는 정기와 상시기간의 관리체계의 미흡이다. 정기훈련을 받았으면 상시훈련기간에 반드시 교육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물론 체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관이나 교단의 교무에게 맡기게 되면 근무와 업무라는 한계에서 오는 형식적 교육에 그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을 담당한 교무가 전문적으로 상시기간의 교육관리를 맡아서 지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예:상시기간에 통신교육과 더불어 정기적인 교육실시)

3) 예비 도무의 바람직한 교육방향

예비 도무의 바람직한 교육방향은 전술한 바와 같은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법일 것이다.

먼저 예비 도무에 대한 교단의 정책이 명확해야 하며, 그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방

향의 설정과 전문교육요원의 배정으로 확실한 교육관리를 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와 아울러 교육방향의 명확성에 따라 교육목적과 목표의 설정, 전무출신으로서 정신과 자세의 확립, 연구과정의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배정, 정기와 상시기간의 교육관리 등을 개선 보완해 줌으로써 예비 도무의 바람직한 교육방향이 정착되어지리라 본다.

2. 예비 덕무의 교육방향

1) 예비 덕무의 교육과정

예비 덕무의 교육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예비전무출신교육에관한규칙제26조)

- ◇ 예비덕무의 교육기간은 4년으로 한다.
- ◇ 교육과정은 정기 및 상시훈련으로 구성한다.
- ◇ 정기훈련은 정기훈련 11과목으로 편성하되 년 30일 이상 실시한다.
- ◇ 상시훈련은 근무처의 기관장 책임아래 근무처에서 실시한다.

2) 예비 덕무의 교육과정 문제점

예비덕무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전술한 예비 도무의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나타난다.

먼저 교육의 외적인 부분에서 덕무의 지원자중 상당부분 생활 여건상 교당에서 살다가 덕무를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전무출신으로서 자긍심과 사명감 그리고 봉공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의 자각과 회상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선결되어야 하며, 그동안 전무출신하면 교무품과 교무로 생각했기 때문에 껏은 일을 하는 봉공직은 어딘가 소홀한 점이 있었던 듯한 감을 떨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무들 자신이 의식 전환을 가져와야 할 부분이다. 소태산대종사는 「큰 회상을 일어내는 데에는 재주와 지식과 물질이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필요하나 “설혹 둔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혈심(血心)가진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나니” 그가 참으로 알뜰한 주인이 될 것이며, 모든 일에 대성을 보게 되나니라.」(교단품32장)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교단적 분위기가 봉공을 중요 덕목으로 알고 봉공직의 전무출신에 대한 교육과 관리로 많은 불보살이 배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교육전문요원을 두어 관리함과 동시에 교육과정의 합리적이고 점진적이며 종합적인 검토와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기교육

기간과 상시교육기간의 일과성 있는 지도 관리를 통하여 자긍심을 갖고 봉공하는 덕무 배출을 해야 할 것이다.

3) 예비 덕무의 바람직한 교육방향

예비 덕무교육의 바람직한 교육방향도 마찬가지로 예비덕무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봉공직에 맞는 특성있는 교육과 끊임없는 공부심과 봉공심으로 봉공직에서 많은 불보살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겠다.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덕무교육의 방향성을 명확히 세우고, 전무출신으로서 정신과 자세의 확립, 연구과정의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포석, 정기교육(훈련)과 상시훈련(교육)기간의 연계 선상에서 지도와 상시교육(훈련)기간의 교육 관리 등을 개선 보완해 줌으로써 예비덕무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이 정착되어지리라 본다.

V. 예비 도무 · 덕무의 교과과정에 대한 제안

1. 예비 도무의 교과과정에 대한 제안

1) 원불교 교육이념

본교의 교육이념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에 바탕하여 인류를 두루 교육함으로써 시대의 문명을 촉진시키고 제생의세의 사명을 실현하여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2) 전무출신 도무 교육목적

원불교 교육이념에 바탕하여 전무출신의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후천개벽시대를 선도할 정신개벽의 일꾼으로써 전문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3) 예비도무 교육목표

- ㄱ. 전무출신으로서의 정신과 서원을 굳건히 한다.(서원확립)
- ㄴ. 일원상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종교적 품성을 도야한다.(종교적 품성 도야)
- ㄷ. 교법을 실천하고 회상을 널리 선양하는데 신명을 다 바친다.(교법실천 선양)
- ㄹ. 공중을 위해 자기를 헌신하는 봉공 자세를 확립한다.(봉공자세 확립)

ㅁ. 사회·국가·세계적 과제에 기여하는 창조적 전문성을 함양한다.(창조적 전문성 함양)

ㅂ. 더불어 사는 삶의 윤리와 자세를 기른다.(공동체적 삶 구현)

- 예비교무 교육발전안 참조 -

4) 교육년한은 정기·상시훈련과정 4년으로 한다.

◇ 정기 교육(훈련)과정

ㄱ. 정기훈련 기간은 1년에 14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ㄴ. 전무출신 서원시 15일 서원정신으로 거듭나는 집중적인 훈련을 하고, 출가식 전에 15일간 총 마무리 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한다.(규정에 연간 20일 이상 정기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 데 현재는 14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과 마무리 15일간씩 집중적인 훈련을 하게 되면 연간 20일 이상 하게 되는 것이다.)

ㄷ. 정기 훈련기간 교육은 11과목 중심으로 하되 전무출신 정신교육과 수양·연구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ㄹ. 정전·대종경·교사·예전·불조요경·법규 등을 년차별로 중복되지 않게 배정한다.(상시 교육기간에도 계속적으로 경전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ㅁ. 그 밖에 11과목을 년차별로 적절히 배정하며, 필요한 경우 특강 등을 배정하여 교육한다.

◇ 상시 교육(훈련)과정

ㄱ. 상시훈련 과정은 통신 교육 형식으로 진행하되 공부상황과 보고서(또는 과제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년 2~3회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

ㄴ. 상시훈련기간 교육은 상시훈련과목을 중심으로 하되 취사과목을 집중적으로 단련한다.(상시용융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일과에서 득력한다.)

ㄷ. 아침과 저녁은 좌선과 염불(기도)을 주로 한다.

ㄹ. 저녁 남은 시간은 경전연습하기를 주의한다(필요시 사경(寫經),대의뽐기 등을 지속

적으로 지도한다.)

ㄱ. 상시일기를 기재하며, 심신작용처리건과 감각감상건을 주기적으로 제출한다.

ㄴ. 그 밖에 지도할 사항은 통신지도를 통하여 수시로 지도 교육한다.

2. 예비 덕무의 교과과정에 대한 제안

1) 원불교 교육이념

본교의 교육이념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에 바탕하여 인류를 두루 교육함으로써 시대의 문명을 촉진시키고 제생의세의 사명을 실현하여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데 있다

2) 전무출신 덕무 교육목적

원불교 교육이념에 바탕하여 전무출신의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후천개벽시대를 선도할 봉공의 일꾼을 양성하는데 있다.

3) 예비덕무 교육목표

ㄱ. 전무출신으로서의 정신과 서원을 굳건히 한다.(서원확립)

ㄴ. 일원상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종교적 품성을 도야한다.(종교적 품성 도야)

ㄷ. 교법을 실천하고 선양하고 회상을 널리 선양하는데 신명을 바친다.(교법실천 선양)

ㄹ. 공중을 위해 자기를 헌신하는 봉공 자세를 확립한다.(봉공자세 확립)

ㅁ. 사회·국가·세계적 과제에 기여하는 창조적 봉공성을 함양한다.(창조적 봉공성 함양)

ㅂ. 더불어 사는 삶의 윤리와 자세를 기른다.(공동체적 삶 구현)

— 〈예비교무 교육발전안 참조〉 —

4) 교육년한은 정기·상시훈련과정 4년으로 한다.

◇ 정기 교육(훈련)과정

ㄱ. 정기훈련 기간은 1년에 14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ㄴ. 덕무 전무출신 서원시 15일 서원정신으로 거듭나는 집중적인 훈련을 하고, 출가식

전에 15일간 총 마무리 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한다.(덕무는 규정에 연간 30일 이상 정기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 데 현재는 14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과 마무리 15일간씩 집중적인 훈련을 하고, 연간 2~3회정도 특별소집하여 소정의 교육을 시행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통신교육을 통해서 지도 교육할 수도 있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㉔. 정기 훈련기간 교육은 11과목 중심으로 하되 전무출신에 대한 정신교육과 수양·연구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 ㉕. 정전·대종경·교사·예전·불조요경·법규 등을 년차별로 중복되지 않게 배정한다.(상시 교육기간에도 계속적으로 경전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㉖. 그 밖에 11과목을 년차별로 적절히 배정하며, 필요한 경우 특강 등을 배정하여 교육한다.

◇ 상시 교육(훈련)과정

- ㉑. 상시훈련 과정은 통신 교육 형식으로 진행하되 공부상황과 보고서(또는 과제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년 2~3회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
- ㉒. 상시훈련기간 교육은 상시훈련과목을 중심으로 하되 취사과목을 집중적으로 단련한다.(상시용용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일과에서 득력한다.)
- ㉓. 아침과 저녁은 좌선과 염불(기도)을 주로 한다.
- ㉔. 저녁 남은 시간은 경전연습하기를 주의한다(필요시 사경, 대의뽑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 ㉕. 상시일기를 기재하며, 심신작용처리건과 감각감상건을 주기적으로 제출한다.
- ㉖. 그 밖에 지도할 사항은 통신 교육지도를 통하여 수시로 지도 교육한다.

豫備 道務・德務 定期教育(訓練) 年次別 課程(案)

	1年	2年	3年	4年	備考
生活標準	順從 法規遵守	信仰 自己返照	實踐 感謝	率性 奉公	
訓練(教育)目標	이會上 만난 기쁨을 찾고 成佛濟衆의 誓願을 確固히 한다. (成佛濟衆 誓願) 初心入門	敎法觀을 세우고 죽어도 변치않을 信仰觀을 세운다. (四大不離信心) 正法正信	精誠心(工夫心) 으로 敎法을 實踐 하고(修行) 일 속에서 佛供하고 眞理生活을 한다. (眞理生活) 心裏工夫	自性返照 工夫에 재미를 붙이고 日常修行의 要法으로 日課에서 得力한다. (生活是佛法) 報恩奉公	
訓練重點要素	身行操心 氣質變化 普通級戒文 遵守	信仰體驗 特信級 戒文遵守	敎法實踐 속 깊은 工夫 特信級・相戰級	日常生活法度 日課에서 報恩奉公 相戰級 戒文遵守 性理研磨	
教 理 大	正典	開敎의 動機 敎法の 總說 戒文 敎理圖	一圓相 信仰 四恩 心告와 祈禱 懺悔文 日記法	一圓相 修行 一圓相誓願文 三學八條 佛供法 無時禪法 靈肉雙全法	一圓相 法語 四大綱領 四要 日常修行의 要法 疑頭要目 率性要論 病든 社會와 그 治療法
	大宗經	序 品 信誠品 實施品 展望品	敎義品 因果品 薦度品	修行品 佛地品 咐囑品	人道品 辨疑品 性理品
	鼎山宗師法語	機緣編 經綸編 道運編	原理編 經義編	務本編 勸道編	公道編 生死編 國運編
	禮典	通禮編	通禮編	家禮編	教禮編
	敎史	開闢의 黎明	會上의 創立	聖業의 結實	未來世上 展望
教團觀	佛祖要經	四十二章經 賢者五福德經 初發心自警文 信心銘	業報差別經 般若心經	修心訣 牧牛十圖頌 休休庵坐禪文	金剛經 六祖壇經
	敎團觀	會上觀 主世佛觀	眞理觀 人生觀	敎法觀 宗教觀	宇宙觀(世界觀) 時代觀(歷史觀)
敎養	先進文庫 讀書 聖者들의 삶 耽讀 明心寶鑑	韓國傳統思想 韓國文化理解 東洋思想書 耽讀 冥想書 耽讀	佛敎學 理解 大學・中庸 讀書 習慣化	心理學 理解 菜根譚 各 宗教의 理解 未來時代에 對한 理解	
其他	坐禪, 念佛, 講演, 會話, 疑頭, 性理, 定期日記는 每年 深化시켜 나간다.				

VI. 맺는 말

개벽의 주세성자 소태산 대종사는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는 숙겁의 원력과 서원으로 개교(開敎)하였다. 전무출신은 소태산 대종사의 개교의 뜻을 받들어 낙원세계를 일구어 나가는데 혼신을 다하여 교법 실현에 전무하는 주역이다. 그러므로 전무출신의 교육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제 천년을 마감하고 새천년을 시작하려는 준비에 세상이 온통 들떠 있다. 새천년의 시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금방 큰 변화가 시작될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떤 상황이든 준비 없는 새로운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건 역사의 현실이다.

교단도 3대 1회를 마감하고 3대 2회를 맞이한다. 교단의 여러 현안이 많이 있지만 교육의 문제는 미룰 수도 미루어서도 안된다. 그것은 교단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원기 75년 11월 11일 제3회 교무회의 때 전 교역자들의 그 뜨거운 열기가 예비교역자 교육발전안을 창출하였다. 그것은 교단사 중 중대한 하나의 매듭이었다.

그리고 교육은 끊임없이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작업이다. 전무출신 품과별 제도가 시행된지 4년째를 마감해 간다. 그러나 예비도무와 덕무의 교육정책·방향·체제·교육요원·교육과정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차체에 “예비도무와 덕무의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 그리고 급히 서두르다 보니 졸속하기 그지없다. 주로 예비교무 교육발전안과 예비교무 교육규정을 많이 참조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예비도무와 덕무의 교육에 관한 연구와 검토가 많이 이루어져 예비도무와 덕무의 교육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교무님들과 교단의 관심과 지원속에 전무출신으로서 정신과 자세가 확립된 훌륭한 도무와 덕무가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해 본다.